



박남준 시인

‘첫는 오시는 날 당신의 떠나가면 멀
어가던 발자욱 하얀 눈길에는/ 먼 기다
림이 남아 노을 노을 젖습니다 불게 타
던 봉송아 꽃물/ 손톱 끝에 매달려 이렇
게 이렇게도 가물거리는데 당신이 내게
/ 오시며 새겨놓을 하얀 눈길 위 발자욱
여디쯤이어요/ 눈이 왔으면 좋겠습니
다 첫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준
시 ‘당신이 첫눈으로 오시면’)

시인의 시가 장중한 첼로로, 피아노와
베이스 드럼이 어우러진 경쾌한 재즈 음악
으로, 아름다운 사람의 목소리로 전해진
다.

시인의 작품을 꾸준히 음악으로 만들어
온 ‘시를 노래하는 달팽이들의 포엠콘서
트’(이하 포엠콘서트)가 올 두번째 행사
‘적막, 그 이후’를 개최한다. 10일 오후 7시
30분 사직공원 레드피크 씨어터(옛 KBS
광주방송총국).

2003년 처음 포엠콘서트가 발을 뻗을
때 함께 머리를 맞고 고민을 한 시인이
있었다. 전주 모악산방에 머물며 우리 지
역 음악인인 한보리씨 등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박남준(58) 시인이다. 전국에서
유례가 없었던 형태의 공연을 준비하며
시인과 음악인들은 우리가 꼭 알아야할
시인들을 선정 후 그들의 시를 노래로,
연주곡으로, 영상으로, 몸짓으로 풀어냈
다.

‘적막 그 이후’는 박 시인의 등단 30주
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포엠 콘서트다. 특
히 5년만에 내놓은 기념 시집 ‘중독자’ 발
간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영광 법성포 출신인 박 시인은 1984년

‘지리산 시인’ 박남준 등단 30년 광주서 ‘포엠콘서트’ 열린다

10일 사직공원 레드피크 씨어터

‘시인’으로 등단, ‘다만 흘러가는 것들을
듣는다’, ‘그 아저씨네 간이 휴게실 아래’
등의 시집을 펴냈다. 특히 ‘박남준 산방일
기’, ‘꽃이 진다 꽃이 핀다’ 등 마음을 울리
는 산문집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신작 ‘중독자’에 실린 작품으로는 ‘검은
한 시간’을 만날 수 있다. ‘(중독)수고로운
땀방울들이 건너와서/ 소금가마처럼 거
드름이가 젖어오고/ 확~ 뜨거워진다/ 누
군가 새벽처럼 일어나 푸른 길을 뒀다/
그리하여 지금은 조금쯤/ 겨우 조금쯤 검
손해지는 나이’임을 고백하는 글들이 마
음에 아린다. 이어 선보이는 ‘한 발 첫발자
국’은 베이스와 피아노 드럼이 어우러진
곡으로 한보리씨가 노래를 부른다.

2003년 포엠콘서트 함께 기획
‘적막, 그 이후’

장중하고 아름다운 詩

첼로·재즈·노래로

시집 ‘중독자’ 발간 축하도

또 이전 시집에서 뽑은 ‘진달래’와 ‘당신
이 첫눈으로 오시면’을 메조소프라노 진진
씨의 음색으로 듣는다.

그밖에 시인과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북효근 시인의 ‘청학동 가는 눈길’, ‘토란
잎에 궁그는’을 음악으로 만나보며 제주
의 시인 김수열의 ‘자작나무’, ‘여행’ 등을
가수 오영목과 세실리아, 나루(박양희)가



부른다.

첼리스트 김영일,
연극배우 박규상,
피아니스트 강윤숙,
베이스리스트 김성광,
드럼주자 정명훈씨
가 함께하며 시인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도 마련된다.

박 시인과 오랜 만남을 가져온 진진 포
엠콘서트 대표는 “박 시인은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사
람”이라며 “그런 마음들이 그대로 시로
나오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것같
다”고 말했다. 티켓 가격 1만5000원. 문의
010-6725-967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는 10일 사직공원 레드피크 씨어터에서 열리는 포엠콘서트는 박남준 시인을 초청 ‘적막, 그 이후’를 주제로 열린다.

오영미 ‘笛聲’ 피리독주회 9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피리와 태평소를 만나다.

국악인 오영미씨가 오는 9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笛聲(적성)’을 주제로 여섯번째
피리 독주회를 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피리 독주곡의 명곡으로 알려져 있
는 전통음악 ‘상령산’과 ‘서용석제 한세현류피리산조’,
‘대풍류’를 들려준다. 또 태평소의 즉흥성과 섬세한 춤사
위가 어우러진 진도북춤도 만날 수 있다.

이대백(장구), 원완철(대금), 박병원(장구), 김오현(쟁

과리), 이왕재(징), 이동훈(해금), 강은영(북춤)씨 등이 합
계 출연한다.

오씨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으로 중요무형
문화재 제46호 대취타 전수자,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4호
삼현육각피리보존회 전수자로 활동하고 있다. 전북대학
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겸
임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문의 010-4132-938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영미



광주시립발레단 ‘성인발레 교실’ 신설

20~50대 25명 선발… 2기 회원 29일 인터넷 접수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신순주)
유아교실은 지난 1997년 첫선을 보였
다. 현재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59명
이 발레단원 김진아·조현지씨 등의
지도를 받고 있다.

시립발레단이 창단 후 처음으로 성
인발레 교실을 개설했다. 지난 7월 첫
선을 보인 성인 교실에서는 20대~50
대 수강생 20여명이 주2회 교육을 받
고 있다.

발레는 특성상 꽃꽂한 자세를 유지
해야 하는 터라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고 에너지 소모가 커 다이
아트에도 효과가 좋다. 최근에는 발레
가 연예인들의 몸매 관리 비법으로 각
광을 받게 되면서 발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수강 신청도 인
터넷 접수 오픈 10분만에 마감될 정도
로 인기를 모았다.

성인발레 교실은 19세이상 성인부
터 접수가 가능하며 강의는 매주 화
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15분부터 1시
간 30분씩 진행된다. 3월, 6월, 9월, 12
월 3달마다 29일 오전 11시 인터넷을
통해 접수받는다. 매회 25명을 선발
하며 수강료는 3개월에 12만원이다.

초급반 운영과 함께 이번 수강생들
을 대상으로 중급반과 고급반도 추후
개설할 예정이다. 인터넷 게시판 접수
www.gcityballet.com.문의 062-
522-871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고은 시인 제2회 심훈문학대상 수상

제2회 심훈문학대상(상금 2000만
원) 수상자로 시인 고은(82)이 선정됐
다고 상 운영위원회가 7일 밝혔다.

이처럼 전 문화부 장관과 김성곤 한
국문학번역원장, 이승훈 세한대 총장,
스티븐 캐페너 서울여대 교수, 고영훈
한국외대 교수로 구성된 상 심사위원
회는 “시대의 아픔과 번민이 깃들여
있는 언어와 세월이 흐를수록 타오르
는 글쓰기의 치열성에 주목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
혔다.

고은 시인은
대표작 ‘만인
보’를 비롯해
시와 소설, 평
론 등의 저서를

150권 이상 펴

낸 점과 25개국어로 작품이 번역된 점
등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합뉴스

대구에 ‘한국수필문학관’ 9일 개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필문학관이
대구에 들어섰다.

한국수필문학관건립위원회는 오는
9일 대구시 중구 봉산동에 ‘한국수필
문학관’을 개관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번에 건립된 수필문학관은 대지 558
㎡에 지상 3층 1동, 지상 2층 1동 등 연
면적 660㎡에 기획전시실·수필도서
관·세미나실·다목적 강의실·편의시

설 등을 갖추고 있다.

계간 ‘수필세계’ 주간이자 진광고등
학교 교감인 홍익선(58) 씨가 건립위
원장을 맡고 문인들이 뜻을 모아 건립
되었다. 전체 사업비 13억 중 홍 위
장이 12억 원 가량을 사재 출연하고,
90여 명의 문인이 십시일반으로 1억
원 가량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길 63년

光州日報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

무인텔
부지매매

토지 직거래

건축 허가
즉시 가능

상업지역
총 3필지
각 1필지당
220평(730㎡)

총 660평
(2,181㎡)

주인 직매
010-5450-1172

NAVER *다들 물어봐* 대비플라워

죽아와환3단

근조와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백성) 302-0316-649511

옥상·외벽·내벽·주택
전 | 문 | 방 | 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위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비단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능성동 680-29